음악과 기사
주체91(2002)년 5월 17일

인류의 염원속에 만발하는 김정일화

절세의 위인을 우러르는 만민의 흠모심을 담아 온 누리를 붉게 붉게 물들이며 피어나는 **김정일**화. 우리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 덕성에 매혹된 진보적 인민들이 이 태양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며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찬란할 미래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해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 있는 영도력과 풍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써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체77(1988)년 경사로운 2월 16일을 맞으며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난 **김정일**화.

김정일화는 인류의 뜨거운 마음속에 세상에 나온 때로부터 지금까지 8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만발하여 세계 인민들의 마음을 더없이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제6차 **김정일**화전시회장에는 우리 나라는 물론 중국, 러시아, 몽골,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에서 보내온 **김정일**화가 전시되어 만사람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인류의 염원과 축원속에 피어난 **김정일**화를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보던 우리는 러시아과학원 중앙식물원에서 아름답게 피었던 **김정일**화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꽃을 보노라니 화려한 극장무대에서 흠모의 마음담아 부르던 이 나라 여가수의 부드러운 노래선율이 귓전에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 여기에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몇해전 우리 나라에는 이전 러시아신문 ≪쁘라우다≫책임주필을 한 슬레즈뇨브가 왔었습니다.

그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참으로 깊은 감동속에 보았습니다.

그는 귀국에 앞서 호실에 활짝 피어난 **김정일**화앞에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정열에 불타는 듯한 붉은 꽃, 청신한 기운이 차넘치는 푸른 잎새. 그 꽃을 바라보며 그는 일본인이 이 아름다운 꽃에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신 깊은 의미를 새겨보기를 그 몇번. 그럴수록 가슴에 안겨오는 것은 절망과 좌절에 모대기던 천만수억의 심장에 사회주의재생의 신념을 부어주시고 사회주의를 활력있게 새로이 추동해 나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였습니다.

그는 절세의 위인을 닮은 **김정일**화에서 러시아의 미래, 사회주의와 인류의 미래를 밝은 마음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김정일**화뿌리를 조국땅에 가져다 심자.≫

꽃에 대해 온 넋과 심혈을 다바쳐 드디어 러시아땅에 붉고 푸르싱싱한 정기를 풍기며 **김정일**화가 활짝 피어났을 때 그가 동료들에게 한 이야기, 사람들의 가슴 뜨겁게 해줍니다.

≪태양의 꽃을 피우려는 나의 소원은 풀렸습니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나의 매혹이 이 꽃에 비꼈습니다. **김정일**화에서 우리는 자주위업의 영원한 태양을 우러르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자란 꽃송이들이 활짝 피어 우리 장군님 러시아방문을 축복해드렸고 러시아사람들이 그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오늘은 평양의 전시회장에 **김정일**화꽃바다를 펼쳐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부근의 한 꽃창포원에도, 머나먼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도,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까르의 **김일성**서점에도 활짝 피어 그윽한 향기를 뿜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일**화가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널리 보급 재배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꽃이 아름답고 매혹적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주시대가 낳은 걸출한 위인을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염원의 분출인 것입니다.

꽃이 사람들에게 주는 사상정서적 감흥은 자못 큽니다.

열정의 꽃, 불멸의 꽃 **김정일**화의 향기속에 희망과 미래, 승리의 신심과 낙관을 받아안는 외국의 벗들은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김정일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몽골, 마다가스까르에서는 **김정일**화온실이 개관됐으며 일본**김정일**화애호회, 몽골**김정일**화협회, 북유럽**김정일**화협회가 무어져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불멸의 꽃으로 온 세상을 수놓고 싶어하는 5대륙 인민들의 지성에 의해서 **김정일**화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에 이르는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붉고 푸르싱싱한 정기를 풍기면서 꽃바다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땅위에 인류의 유구한 화초재배역사가 흘렀지만 **김정일**화처럼 세상에 태어나 불과 몇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지구의 곳곳에 뿌리내리고 아름답게 피어 만민의 사랑과 경탄을 자아내는 꽃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만민이 칭송하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꽃중의 왕, 세계가 우러르는 태양화, 시대를 대표하는 꽃으로 인류의 마음속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음악과 기사

• 인류의 염원 속에 만발하는 **김정일**화
• 뜨거운 민족애에 실려 울려가는 노래
• 영원히 울려가라 동지애의 노래여

뜨거운 민족애에 실려 울려가는 노래

-노래 ≪노들강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민족음악은 매개 나라의 음악예술에서 기본을 이룬다. 민족음악은 민족생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계승발전되어온 전통적인 음악이다.≫

조선8경의 하나로 이름을 떨쳐온 평양의 경치를 사랑하는가. 평양의 유구한 역사를 되새겨주는가. 노래가 울립니다.

맑고 우아하고 유창하면서도 부드럽게 흘러가는 선율진행과 유연한 굴림새, 흥겨운 민족장단의 열정을 타고 울려가는 민요 ≪노들강변≫.

따사로운 이 봄날, 노래를 불러도 향긋한 봄의 정서를 유순하고 아름다운 선율과 흥겨운 민족장단에 태운 민요 ≪노들강변≫을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보는 우리 인민들.

음악은 시대감정의 분출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 즐겨 불리워지고 있는 노래 ≪노들강변≫은 1930년대에 창작돼서 보급됐던 계몽기가요의 한 종류인 신민요.

노래 ≪노들강변≫은 일제의 발굽아래 민족수난을 당하는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민족적 정서가 진하게 풍기는 시어들과 선율로 잘 형상한 노래입니다. 특히 바람에 흩날리는 봄 버들가지에 대한 형상적 표현으로 그 누구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염원하던 당대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감정을 소박하게 담고 있습니다. 가요는 짓밟힌 민족의 울분과 반항심을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기에 당시 우리 인민들은 선율이 유순하고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여유있는 지속음절들과 굴림새들로 조화롭게 결합되어 가사가 요구하는 운율적 특성을 음악정서적으로 잘 밀착시키고 있는 노래 ≪노들강변≫을 부르며 민족의 청소한 넋을 지켜왔습니다.

소망, 노래는 있어도 빼앗긴 강토에서 유구한 민족성이 여지없이 짓밟혀 신음하던 우리 인민이였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시어 인민이 주인된 그날로부터 내 나라의 강기슭과 들에 서 있는 봄버들도 싱그러운 바람을 타고 행복에 겨워 춤을 추며 설레일 수 있게 됐습니다.

비애와 한탄, 곡절과 쓰라림으로 부를수록 가슴을 저미던 민요 ≪노들강변≫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불리워지게 됐습니다.

어찌 신민요 ≪노들강변≫만이겠습니까. 일제의 가혹한 민족음악말살책동이 우심하게 강행되고 있던 시기에 창작돼서 우리 인민들속에서 불리워져온 ≪조선8경가≫, ≪뻐꾹새≫, ≪봄이 왔네≫ 등을 비롯해서 계몽기가요들이 자기의 빛을 되찾았고 눈물과 한탄속에 봉선화의 구슬픈 향수에 잠겨 모대기던 음악가들도 우리 민족음악을 찬란히 개화발전시켜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아래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민족음악은 조국을 가장 사랑하시고 민족을 제일로 아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세심한 지도속에서 더욱 찬란히 꽃펴나고 있습니다.

변천하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민족문화유산인 계몽기가요를 시대앞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그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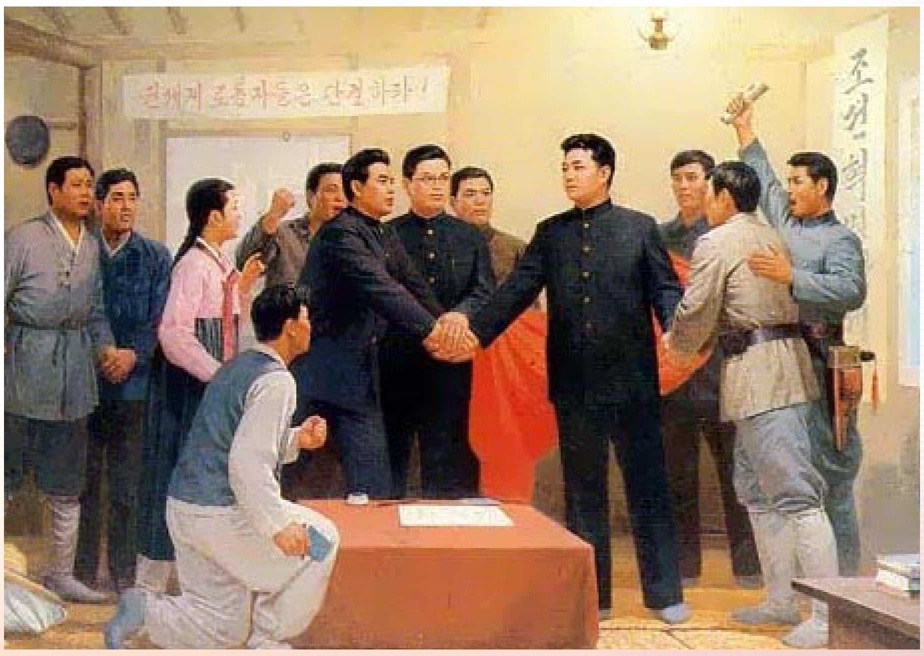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옳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처리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일군들이 조국과 혁명, 역사와 인민앞에 이 문제를 완전히 책임진 입장에 튼튼히 서서 신중히 평가하고 서야 할데 대해서와 지난날의 문학예술작품들을 발굴하고 정리하며 재현하는 사업을 잘 할데 대해서 감명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정에 떠받들려 오늘도 계몽기가요를 비롯한 수많은 민족문화유산들은 발전하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찬란히 개화발전되어 강성대국의 대진군길에 들어선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의 긍지와 향기를 더해주며 유정하게 울려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민족의 노래가 기리 울릴 수 있고 민족음악의 참다운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날 민족의 설움을 가냘픈 버들가지에 비겨 노래하던 우리 인민은 오늘 이 땅위에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로 주체의 강성대국을 안아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속에 영원한 민족번영의 내일을 끝없이 노래하며 빛나는 **김일성**민족의 역사를 수놓아가고 있습니다.

정녕 주체적인 민족음악발전에 깃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뜨거운 사랑에 실리어 우리 인민이 부르는 하나하나의 노래들은 그토록 아름다운 것이니 빛나는 주체조국의 역사와 더불어 유순하고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노래는 더욱 세차게 끝없이 울려퍼질 것입니다.

영원히 울려가라 동지애의 노래여



가는 길 험난하다해도
시련의 고비 넘으니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금 주고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네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험난하고 시련 많던 조선혁명의 가시덤불길을 동지애의 위대한 심장으로 헤쳐오고 앞으로 가야 할 혁명의 천만리길을 바로 동지애로 이어가려는 경애하는 장군님과 우리 인민의 억센 신념이 노래의 구절구절마다에 뜨겁게 맥박쳐 흐르는 영원한 사랑의 노래, ≪동지애의 노래≫.

오늘 시대의 메아리로 울려퍼지는 동지애의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명적 동지애로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혁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당당히 자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혁명의 첫시기부터 높이 들었던 동지애의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동지애! 주체혁명위업의 첫 닻을 올리던 시기에 우리의 동지애는 씨앗이였고 싹이였습니다. 그것이 움트고 가지를 치고 거목이 되어 세기의 분수령을 넘어선 오늘 우리의 동지애는 일심단결의 무성한 숲을 펼치였고 전당, 전군, 전민의 대풍으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왜 혁명의 첫 시기에도 이 구호를 들었고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에도 변함없이 이 동지애의 구호를 더높이 추켜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혁명은 어떤 혁명이기에 우리는 과연 누구이기에 이 땅에서는 동지애라는 말이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뀔수록 더 큰 가치와 생명력을 가지고 그처럼 뜨겁게 울리는 것이겠습니까.

캄캄한 광야에 타오르며 우리 혁명의 첫 아침을 불러온 ≪ㅌ.ㄷ≫의 불길이 바로 동지애의 위대한 탄생이였습니다.

우리 혁명대오에 일세대들이였던 김혁, 차광수들이 한별의 노래를 부르며 천금주고 살 수 없는 동지애의 사랑을 피와 목숨으로 나누었던 그 시절, 길림바람으로 천지를 진감시키던 투쟁의 폭풍우속에서 조선혁명이라는 함선이 첫 출항의 고동소리를 울렸습니다.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하여 적들을 뒤에 달고 혈전의 광야를 질풍같이 누볐던 오중흡 7연대의 나팔소리, 사지판에서 믿음의 대용단으로 불신의 보따리를 활활 태워버린 그 불길, 고난의 행군길에 꽃펴난 한홉의 미싯가루의 전설같은 동지적 사랑이 있어 항일혁명 20성상의 역사적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흘린 동지를 잊지말라고 부르짖으며 불타는 고지마다에서 청춘의 가슴으로 적들의 화구를 막고 적후천리 험한 길을 헤쳐 기어이 최고사령부를 찾아가게한 영웅적 희생성과 강렬한 그리움. 이 고결한 동지애로 우리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는 기적을 안아왔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동지애의 거세차고 뜨거운 열풍으로 전후의 잿가루도 흩날려버리고 천리마가 날아오르게 했으며 사회주의기둥을 억세게 박아놓고 세상이 그처럼 선망하는 일심단결의 화원도 활짝 꽃피워놓았습니다.

우리 혁명역사에는 수령이 알고 인민이 기억한 참다운 충신들, 잊지 못할 동지들이 많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토록 금고에 간직하고 계시던 한장의 사진이 말해주는 숭고한 동지애의 이야기, 싸워도 **김일성**장군님을 받들어 백두산에서 싸우다가 묻히겠다는 순결한 맹세를 다지고 수령님께서 맡겨주시면 그 무슨 일이나 못해내는 일이 없었던 김책동지를 우리 당은 오늘도 잊지않고 있습니다.

주체의 향도성을 받들어 또 얼마나 많은 충신의 별무리들이 빛을 뿌렸습니까.

백두산의 혈통을 이은 사연 깊은 삼지연의 새벽길과 더불어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신 우리 당의 충직한 전사들.

속도전의 1970년대에 이어 번영하는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는 혁명의 수십만리길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는 숭고한 동지애의 역사.

경애하는 장군님은 병사들과 인민들을 마음속에 그리시고 병사들과 인민들은 장군님을 자나깨나 우러르며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고난의 행군, 선군혁명 천만리길에서 동지애는 천만대적도 이기는 만능불패의 무기였고 몇천만석의 식량도 대신한 불굴의 정신력이였으며 우리 일심단결의 마를 줄 모르는 샘이였습니다.

수령님의 전사, 제자답게 한마음 한뜻으로 일떠서자는 장군님의 뜨거운 동지적 호소를 심장에 새겨안고 우리는 피눈물의 바다에서 용감히 일어서서 역사에 유례없는 시련의 광풍을 헤치며 오늘의 영마루로 올라섰습니다.

조선혁명은 참으로 영으로부터 빈터로부터 동지애의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여 오늘 이 땅에 역사에 대고 소리칠만한 승리와 영광을 가득히 안아왔습니다.

돌우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 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거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네

새기면 새길수록 동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시고 우리 혁명을 이끌어오시는 장구한 기간,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동지애의 빛나는 역사를 수놓아오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이 어리어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함없이 우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의 의지가 뜨겁게 안겨오는 노래입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동지애의 역사로 빛나게 새겨지는 우리 혁명사에 대하여 돌이켜보노라면 우리 장군님께서 동지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구절구절 안겨옵니다.

≪한번 뜻을 같이하면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주체위업에 복무하는 우리는 서로 동지입니다. 나는 동무들을 동지로 믿고 동무들도 나를 동지로 믿으며 일합시다.≫

정녕 얼마나 뜨거운 동지적 믿음과 사랑이 마디마디에 넘치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동지라는 말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

옛날 속담에 팔백금으로 집을 사고 천금으로 이웃을 산다고 했지만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동지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

그이가 바로 동지들사이의 사랑이 곧 단결이며 동지애가 진실하고 뜨거울수록 일심단결이 더욱 순결해지고 공고해진다시며 동지애의 노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동지애의 노래에서 기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변치말자 한별을 우러러 보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혁명이 유례없이 엄혹한 시련을 겪던 최근년간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동지애의 노래를 부르시며 동지들과 함께 어려운 난국을 헤쳐오셨습니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나날들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병사들을 찾아 인민들을 찾아 걷고 걸으신 길은 가장 숭고한 동지애의 서사시를 수놓아오신 길이였으며 동지애로 시련과 난관을 뚫고 헤치시며 우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동지애의 위대한 장도이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고 동지애를 당당히 자랑합니다.

그 무엇에도 비길데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조선혁명특유의 재부이며 가장 위력한 힘인 동지애.

조선혁명의 백승의 비결이고 우리 민족의 만복의 근원이며 아름다운 인간화원의 자양분인 동지애. 역사상의 그 어느 혁명에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세계의 그 어느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동지애는 고유한 조선말이며 조선의 제일자랑, 제일모습입니다.

새 세기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험난하고 이룩해야 할 목표도 원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 굳건한 단결과 위대한 힘을 요구합니다. 조선혁명은 뒤를 돌아보아도 동지애의 자욱자욱이고 앞을 내다보아도 동지애의 천만리입니다. 동지애로 시작한 혁명을 동지애로 완성하자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심단결이 그렇듯 고결하고 순결하며 수령을 그리는 인민의 아름다운 사상감정으로 승화된 것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장 숭고한 동지애가 낳은 것이며 우리의 선군정치가 그토록 위력한 것도 혁명전사 한사람 한사람이 최고사령관과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굳게 단합되였기 때문입니다.

동지애! 이것은 나라를 위대하게 하고 민족을 강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따라 영원히 동지애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이 땅위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며 **김일성**민족의 기상을 더높이 떨쳐나갈 것입니다.